

여수서 전국 지방자치 우수 사례 만나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26~29일 세계박람회장

‘여수에 오면 지방자치가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 우수 정책과 먹거리, 향토자원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오는 26~29일 나흘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전시, 정책 토론,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발전시키기 위해 치러지는 행사로, 도(道)단위로는 전남도가 최초로 주관해 여

수에서 개최한다.

박람회의 주제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이며, 슬로건은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이다.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강화하려는 새 정부의 비전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막행사, 지방자치 다양한 분야의 성공사례 발표 시상식,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토론 등이 진행되고 전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개막

행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마당에는 중앙과 각 시도 우수정책 홍보관, 향토자원·마을기업 판매·전시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전시관 등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박람회 최초로 일본 사가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등 해외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또 ‘시군구 우수정책관’을 처음으로 운영해 기초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우수 정책을 홍보한다.

이밖에 박람회장 전체를 도로명 주소 기반으로 운영, 행사장 내 각 부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른 시·도 주민들이 함께 여수를 알고 즐길 수 있는 ‘여수권 학&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자치 스무고개’, ‘지방자치 도전 골든벨’, ‘우리마을 사진전’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또 각 시·도의 먹거리, 향토자원 등을 한 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

고재영 전남도 차지행정국장은 “지방자치박람회가 전남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전남도의 우수한 정책과 관광자원 등을 전국에 소개하고 전국민이 소통하는 의미 있는 박람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력채용 ‘여수 시민 가점제’ 기업 증가

인력 채용 과정에서 여수 시민에게 가점을 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해화학은 GS 칼텍스 여수공장에 이어 인력을 채용할 때 여수 지역민 가점을 적용기로 했다. 여수시와 지역 기업들의 상생 협약에 따른 것이다. 다른 기업들도 확산할 지,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23일 여수시청에서 남해화학 이광록 사장과 ‘남해화학 인력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 업무 협약’을 맺고 상생발전과 여수지역 청년 실업 해소, 인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남해화학은 향후 신입 직원 채용부터 여수 시민에게 가점을 주기로 하고 합리적 수준의 가점제도를 수립·운영할 계획이다.

남해화학은 또 현재 근무 인력을 비롯, 신규 채용 인력이 여수에 주소를 두고 여수국가산단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여수시도 GS칼텍스와 남해화학을 비롯, 여수시민 가점제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기업 홍보와 산단 내 도로, 하천,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정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GS 칼텍스도 지난달 26일 여수



주철현 여수시장과 이광록 남해화학 사장이 23일 여수시청에서 ‘남해화학 인력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 제공>

시와 시민 채용 가점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전 여수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경우 여수시 가점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가점 범위는 5점 내외로 협의, 최종 결정된다.

김병완 여수시 기획예산과장은 “지역 기업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사전 주소 이전 효과로 인구 증가 효과까지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문재인 대통령의 24시’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일정 공개가 시행된다”며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공무와 관련한 대통령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10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문 대통령의 공식 업무 가운데 비공개 일정이 공개됐다.

대통령 일정 공개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이다. 이 공약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정확하지 않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일면서 대통령의 일정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일정 공개의 민감성 등을 고려, 대통령 보고 주체 등을 ‘비서실’, ‘내각’ 정도로 표현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 등으로부터 민감한 주제의 보고를 받는 일정을 굳이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희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지난 3주간 비공개 일정을 보면 12일의 경우 오전 9시 12분, 9시 44분, 10시 10분, 오후 1시 25분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정명은 ‘비서실 일일현안보고’로 동일하다.

대통령 일정 사후공개 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미국, 일본처럼 더욱 자세하게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예산안(2018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첫 시정 연설을 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日 아베정권 ‘전쟁가능한 국가’ 속도 낸다

자민·공민 연립 여당 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

지난 22일 진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 투개표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정국 장악력은 한층 공고화하며, 그가 정치적 사명으로서 제시해 온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8면>

23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 현재 연립여당은 자민당 283석, 공명당 29석 등 312석을 확보했다. 투개표가 마무

리되지 않아 아직 5석의 향배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선 것이다.

자민당은 이전 290석보다 7석 줄어든 283석을 얻어 ‘절대안전다수 의석’(261석 이상·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공명당도 35석에서 29석으로 줄어들어 연립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해산 전 325석에서 13석 못 미친다.

리버럴계가 만든 일련민주당은 54석을 얻어 자민당에 이은 제2당을 확보했다. 해산 전 의석수(16석)보다 3배 이상 의석수

가 늘었다. 반면 선거 국면 초반에 돌풍이 거셌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신당 ‘희망의 당’은 49석을 얻어 해산전(57석)보다 8석이나 의석수가 줄어들며 참패했다. 미결정된 의석 5석을 모두 차지한다고 해도 일련민주당을 넘어설지는 못한다.

일본공산당은 21석에서 12석으로, 보수 정당 일본 유신의회는 14석에서 9석으로 의석수가 줄었다.

한편, 23석이 무소속(기타 정당 포함)의 원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민진당 출신으로 추후 야권 재계편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오카다 가쓰야 전 민진당 대표와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등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앞서, GS 칼텍스도 지난달 26일 여수



광주 관덕정·목포 정광정혜원·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문화재 등록

‘광주 관덕정’(등록문화재 제694호),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등록문화재 제693호), ‘목포 정광정혜원’(등록문화재 제696호)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중진)은 ‘광주 관덕정’ 등 총 8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 관덕정은 근대기 한국 체육시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설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건립됐다. 국공정이라는 건물 성격에 걸맞게 지붕의 처마 곡선과 솟을 등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모양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또한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은 처음 건립 당시 이곳에서 지역민들이 주민 공동체로 활동하다가 이후 원불교 교당으로 발전한 매운 드문 사례다. 대각전 건축의 초기 가구구조와 공간구성 등 기본적 건축형식에서 원형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1918년 세워진 목포 정광정혜원은 불당과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채가 장방형(사각형) 중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내에 배치돼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부동산 투자!

-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 연 30% 이상 순수익 가능
- 경매노하우 10년

문의 H.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팅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전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샵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재단은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2016년 10. 1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함
 - 영광군민 또는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 ◆ 선발 인원 : 00명

II.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통장 사본(본인명의)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ihmygg> 참고

III. 선발 일정

- 서류접수 : 2017년 11월 1일(수) ~ 11월 21일(화) 17:00까지
- 최종 확정 안내 : 2017년 12월 초순경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중시 수여식 : 2017. 12. 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의 날 (12월말 예정)

◆ 신청 방법

- 우편 · 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포로 100 (동천동 혜천빌딩 7층)
- 전화 :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경 : 010-8867-6143

IV.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향우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사무국으로 제출